

광주FC '무패의 땀' 대구서 상위권 노린다

11일 K리그1 12라운드 맞대결 대구은행파크 개장 후 4승 1무 5경기서 17득점 화끈한 득점포 승리 시 최고 4위까지 도약 가능



6연패 후 2연승으로 중위권에 올라서며 5월 대반등을 시작한 광주FC가 대구FC와 '달빛 더비'에서 상위권 도약을 노린다. 광주 선수단은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치른 경기에서 4승 1무, 17득점 10실점으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펼친 만큼 이번 원정에서도 승리하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오는 11일 오후 7시 대구 DGB대구은행파크에서 대구와 하나은행 K리그1 2024 12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지난 6일 대전전을 치른 뒤 다시 5일 간격으로 경기에 나서는 이정효호다.

광주는 최근 2연승을 달리며 6연패의 충격을 지워나가고 있다. 제주를 3-1, 대전을 2-1로 연파하며 순위도 최하위인 12위에서 11위, 8위로 단계적으로 뛰어 올라 중위권까지 도약했다.

대구와 울산, 전북, 인천, 포항까지 이어지는 쉽지 않은 일정이 기다리고 있지만 광주는 이번 달 상위권까지 올라선다는 각오다. 광주가 이번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타 구단 결과에 따라 최고 4위까지 도약할 수 있다.

이정효 감독은 대전전 후 "변화를 주겠



광주FC가 오는 11일 오후 7시 대구 DGB대구은행파크에서 대구FC와 하나은행 K리그1 2024 12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광주 FC 선수단이 지난 6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대전하나시티즌과 11라운드 홈경기에서 2-1 역전승을 거둔 뒤 팬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다는 생각은 일절 하지 않았다. 광주의 색깔을 잃을 수 없다"며 "제가 감독을 하는 한 어떤 팀을 맡아도 축구 철학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고책임 주장 안영규와 젊은 피 변준수는 신구 조화로 광주만의 색깔의 밑받침 역할을 맡는다. 광주는 2연승 기간 안영규와 변준수가 수비에서 호흡을 맞추며 안정화에 성공했다. 특히 높이 싸움에서 강점을 보였고, 노련한 경기 템포 조절로 흐름을 지킬 수 있는 뒷심도 구축했다.

허리에서는 박태준과 정호연, 문민서의 투지와 끈기가 돋보이고 있다. 이들은 공수를 가리지 않는 활동량으로 중원을 든든하게 지키며 날카로운 공격 전개와 현신적인 수비가담으로 주도권을 지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전방에서도 정지용과 허울의 공격력이 더 날카로워졌다. 정지용은 K리그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는 속도를 바탕으로 상대 수비를 헤집고 있고, 공수를 가리지 않는 멀티플레이어로 거듭난 허울은 마수걸이

득점포를 가동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광주는 대구와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서 4승 2무 4패로 백승세를 이루고 있고, 지난 시즌에도 1승 2무 1패로 우열을 가리지 못했다. 통산 전적 역시 9승 7무 9패로 팽팽히 맞서 이번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둘 경우 우세를 점할 수 있다.

하지만 DGB대구은행파크에서는 유독 강했다. 대구가 홈경기장을 옮긴 2019년부터 다섯 차례 맞대결에서 4승 1무로 압

도적인 경기력을 보였다. 특히 2020년 8월30일 6-4, 2021년 3월10일 4-1, 2023년 4월6일 4-3으로 승리하는 등 5경기 17득점(평균 3.4득점)으로 화끈한 공격 축구를 펼쳤다.

대구 최하위인 12위에 머무르고 있다. 광주를 첫 승 제물로 삼은 뒤 7경기 무승의 늪에 빠졌고, 최원권 감독의 사퇴로 박창현 감독 체제로 바뀐 뒤에도 1무 2패로 뚜렷한 분위기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박창현 감독의 지도 아래 젊은 팀으로 변모하며 활력을 찾고 있다. 박 감독은 직전 제주전에서 정재상과 박용희, 박세진, 박재현, 황재원, 박진영 등 22세 이하 자원을 대거 활용했다.

김영준과 장성원, 고재현 등 20대 중반에 접어든 선수들도 제 기량을 펼치고 있고 '세트가 콤비' 세징야와 에드가에 벨틀라로 이어지는 브라질 트리오키까지 여전한 파괴력을 선보이는 가운데 '딸각 축구'로 불리던 역습 위주 전술 대신 적극적인 압박 축구를 펼치며 첫 승을 노리고 있다.

광주는 5월 지옥의 일정이 펼쳐지는 만큼 최대한의 승점을 확보해야 한다. 대구를 꺾고 3연승까지 분위기를 이어간다면 '현대기' 울산과 전북까지 이어지는 강팀들과 맞대결에서도 자신감 있는 경기력이 기대된다. 광주가 대구에서의 화끈한 공격 축구를 이어가며 설욕전에 성공할지 기대된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광주서석고 검도부가 지난 2~5일 경남 남해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7회 대한검도회장기 전국중·고등학교검도대회에서 통합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서석고 제공

광주서석고 검도, 회장기 통합 단체전 우승

1학년부 3인조 단체전은 준우승

광주서석고 검도부가 제7회 대한검도회장기 전국중·고등학교검도대회에서 통합 단체전 우승을 거머쥐며 3년 만에 정상에 올랐다. 1학년부 3인조 단체전에서도 준우승을 거두는 등 선전했다.

광주서석고는 지난 2~5일 경남 남해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 통합 단체전 결승에서 인천고를 3-1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서석고가 통합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것은 3년 만이다.

8강에서 과천고와 2-2(총 득점수 4-4)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며 대표전 끝에 승리를 거둔 광주서석고는 준결승에서는 서울 성남고를 2-2(총 득점수 4-2)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광주서석고는 인천고와 결승에서 선봉 서규원이 차정원과 1-1, 2위 정우민이 김정원과 0-0, 3위 박기주가 김태민과 0-0으로 비긴 뒤 중경 강현우가 조원희를 2-0, 5위 오승준이 김재희를 2-0, 부장 이정

환이 황준혁을 2-0으로 꺾었다. 이어 주장 이윤성이 김우술에 0-1로 패했으나 승자 수 3-1로 우승을 확정 지었다.

광주서석고는 학년별 단체전에서도 입상에 성공했다. 오승준과 정우민, 채희준, 김기훈이 1학년부 3인조 단체전 결승에서 포항 대동고에 0-1로 석패하며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광주서석중 검도부는 같은 대회 학년별 개인전에서 선전을 펼쳤다. 허경도는 1학년부 개인전 결승에서 고종수(상인천중)를 2-0으로 꺾고 우승에 올랐고, 옥하준이 2학년부 개인전 결승에서 박시후(광명중)에게 0-1로 석패하며 준우승을 기록했다.

송찬국 광주서석고 교장은 "이번 대회에서 거둔 우승은 선수들이 그동안 성실하게 열심히 훈련에 임한 결과"라며 "오는 10월 열린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규빈 기자

광주체육중 핀수영, 이충무공배 중등부 종합우승

광주체육중학교 핀수영부가 제21회 이충무공배 전국핀수영대회에서 중등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체육중 핀수영부는 지난 4-6일 충남 아산 배미수영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중등부 종합우승의 성과를 거뒀다.

대회 첫 날인 4일 강운호(1년)·서시형·신재이·손호서(3년)가 중등부 혼성 혼합계영 400m에서 2분47초79로 금메달을 합작했다. 최성연(2년)은 표면 50m에서 21초81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대회 이틀째인 5일에는 강운호(1년)·서시형·신재이·손호서(3년)가 혼성 짝핀계영 400m에서 3분59초88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신재이는 여중부 표면 100m에서 46초67로 은메달을, 서시형은 남중부 표면 100m에서 45초69로 은메달을 각각 추가했다. 최성연은 무호흡 잠영 50m에서 19초60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주체육중 핀수영 선수들이 지난 6일 충남 아산 배미수영장에서 끝난 제21회 이충무공배 전국핀수영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중등부 종합우승의 성과를 거둔 뒤 기뻐하고 있다. 광주체육중 제공

대회 마지막 날인 6일에는 서시형이 남중부 표면 200m에서 1분42초92로 은메달을, 신재이가 여중부 표면 200m에서 1분47초45로 동메달을 각각 획득했다.

정지연 광주체육중 핀수영 감독은 "전국 중등부에서 유일한 핀수영 국가대표 지도

자인 윤아현 코치가 선수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선수들이 훈련으로 노하우를 습득하면서 기량이 향상된 게 이번 대회 좋은 성적으로 이어졌다"고 소감을 말했다.

최동환 기자

송원대 세팍타크로, 회장기 더블이벤트 2연패

송원대 세팍타크로팀이 제35회 회장기 세팍타크로대회 남자대학부 더블이벤트 경기에서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송원대는 지난 1일 경남 고성군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대회 더블이벤트 결승에서 대구과학대를 2-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34회 대회에 이어 2년 연속 우승이다.

레규이벤트 경기에서는 준결승전에서

원광대에 1-2로 패하며 동메달을 차지했다.

지난 2022년 창단 이후 세팍타크로 강팀으로 자리매김한 송원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정호(피더)와 김성훈(테공)이 U-21 태극마크를 달며 학교 명예를 드높였다. 강봉교 광주시체육회 전문지도자는 2년 연속 남자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돼 대표팀을 이끈다.

U-21 세팍타크로 대표팀은 7~14일 충북 보은군에서 강화훈련을 실시한 후 21~29일 태극 나콘랏차시마에서 열리는 제5회 유소년 혼다 유니언 컵에 참가해 금메달에 도전한다.

김동재 송원대 부장 교수는 "광주시체육회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우수 선수 유치와 선수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며 "대학혁신사업단의 팀 지원에도 감사드리며 앞으로 안정적인 선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동환 기자